

## 백중의 기원과 성격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李 秀 子\*

차 례

- I. 머리말
- II. 민속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백중의 양상
  - 1. 백중의 명칭
  - 2. 백중날 거행되는 행사
- III.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의 내용과 의의
  - 1.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의 내용
  - 2. 〈세경본풀이〉 내용의 신화론적 의미와 의의
- IV. 제주도 무속신화 〈세경본풀이〉의 문화사적 위상
- V. 백중의 기원 및 성격
  - 1. 백중의 기원
  - 2. 백중의 성격
- VI. 맺음말

### I. 머리말

우리민족은 특별히 음력 7월 15일을 기리어 이것을 ‘백중’이라 불러

---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강사

왔고, 절이나 민가에서는 이 날 여러 행사를 벌여 왔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지금도 향간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만큼 이 날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세시 중의 하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sup>1)</sup>

백중은 이칭(異稱)도 많다. 그리고 그 의미나 행사가 지금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원래는 전국에 걸쳐 특징있는 많은 행사가 행해져 온 것이다. 이칭이 많다는 사실이나 특별한 행사가 많다는 것, 그리고 이 날 행해지고 있는 행사가 공동체적 삶을 기반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들은 백중이라는 세시가 우리민족에게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어떤 날이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년 중 어떤 하루가 특별히 기념비적인 날로 정해지고 또한 이 날 어떤 공통적인 행위들이 행해진다고 하면, 이것은 원래 어떤 뜻깊은 의미매김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백중은 우리문화에 있어 깊이 뿌리를 드리우고 있는 세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중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진 것 같지는 않다. 백중날 행해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조사된 것 같으나 그 기원이나 구체적인 성격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깊이 있게 천착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본고는 우리 문화상 백중이 지닌 이와 같은 중요성에 기인하여, 백중의 기원적 문제를 한번 해명해 보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백중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이었기에 우리민족에게 있어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 것인가? 그리고 이처럼 깊게 우리 문화에 그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 기저는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이러한 백중의 의미매김을 찾아 보고자 한다.

백중의 기원이나 원래적 성격을 고찰해 보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먼저 백중과 관련된 사실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백중과 관련된 내용이 올바르게 해명되어야만 이것을 토대로 기원적 문제를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는 먼저 백중에 대해 언급하고 있

---

1)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을 설명하는 모든 자료에서 백중을 빼놓지 않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것을 알 수 있다.

는 여러 자료를 근거로 하여 백중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어서는 백중의 기원적 문제를 해명해 볼 수 있는 신화 자료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백중의 기원과 성격 문제를 언급해 보기로 한다.

## II. 민속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백중의 양상

많은 자료가 백중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백중은 민속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날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조선 후기 자료집인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3편과<sup>2)</sup> 최남선의 「조선상식」 「조선상식문답」<sup>3)</sup> 그리고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sup>4)</sup> 「한국민속대관」<sup>5)</sup> 및 기타 논저들을 참고하여 백중에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 
- 2) 「京都雜誌」 정조 때 유득공이 지은 책(2권). 「列陽歲時記」 순조때인 1819년 김매순이 지은 세시풍속지. 열양은 서울을 지칭하는 말로서 주로 서울 지방에서 행해지는 궁중 및 관청, 민간의 풍속을 월별로 기록한 책. 「東國歲時記」 홍석모저. 이자유의 서문으로 보아 현종15년(1849)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이상의 세 책은 저작 연대가 정확하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조선 후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조선후기에 있어 백중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작품의 연대에 대한 것은 「국어국문학사전」,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편, 서울, 신구문화사]를 참조하고, 각 자료의 내용 및 역주는 「東國歲時記」外, 한국학연구원편, 서울:人提閣, 1987]의 것을 이용하였다. 이하 경도잡지는 '경도'로, 열양세시기는 '열양'으로, 동국세시기는 '동국'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 3) 「조선상식」은 1947년에 출간되었으나 여기에 실린 글들은 대부분 1937년부터 1939년에 이르기까지 매일신보에 실렸던 글들을 모은 것이다. 백중에 대한 것은 1937년에 실렸다. 「조선상식문답」은 1946년 출간되었다. 여기에서는 『육당최남선전집』 3 (서울, 현암사, 1973)을 참조하였다.
  - 4) 「한국민속종합보고서」는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후원으로 1969-1981년에 걸쳐 전남, 경남, 경북, 제주, 충남, 충북, 강원, 전북, 경기, 서울, 황해,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의 민속을 조사한 민속지이며 민족지다. 이하 이 책의 이름을 약술하여 '종합'으로 한다.
  - 5) 「한국민속대관」 4 (서울,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 1. 백중의 명칭

### 1) 명칭과 표기

우리는 흔히 음력 칠월 열나흘을 ‘백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발음은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 날은 보통 한자로는 ‘百種(백종)’으로 쓰여진다. 이것은 또 백중절(百種節)「경도, 동국」, 中元「열양, 동국」, 망혼일(亡魂日)「동국」이라고도 한다. 한편 최남선은 이 날을 백중이라 쓰고, 한문으로 百種·魄縱·白腫·白衆 등의 字를 쓰나 그 어의는 다 미상하다고 하였다. 이 중 白腫이라 쓴 것은 「松南雜識」에 의거하고 있다. 백중은 또 한자로 百中이라고도 쓴다.<sup>6)</sup>

### 2) 명칭에 대한 설명

「경도」에는 百種이 백가지 맛을 이르는 것이라 설명하고, 이어 ‘혹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날 옛풍속에 백가지의 곡식의 씨를 진열하였으므로 百種이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황당무계한 설이다’라고 하고 있다. 「열양」에는 백중절을 신라의 가배, 즉 배짜기 시합과 관련지어 설명하기도 하고 우란분의 공양과 관련하여 중원일에 백중의 꽃과 과일을 부처님께 공양하며 복을 빌었으므로 그날의 이름, 곧 백중이라는 말이 생겼다고도 한다. 「동국」에도 백중의 의미를 후자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中元과 관련해서는 〈荊楚歲時記〉에 『中元日에는 僧尼·道士·俗人들이 모두 모여 盂을 만들어 모든 절에 바친다』고 했다 하며 「동국」, 도가에서는 천상선관이 1년 3차 인간의 선악을 기적하는 시기를 元이라 하여 正月望을 上元, 7월望을 中元, 10월望을 下元이라 이르고 三元에다가 醮祭를 닮는 법이 있었다[최남선]고 한다. 백중에 대해서는 최

6) 장주근(1984), 「한국의 세시풍속」(서울, 형설출판사) p.265.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서울, 신구문화사) p.362.

남선이 이 날을 ‘백중’이라고 부름은 그 출처를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이상에서 보면 백중은 간혹 백중이라고도 말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개 ‘百種’과 관련하여 백가지 맛, 백가지 곡식의 씨, 백중의 꽃과 과일 등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2. 백중날 거행되는 행사

여기에서는 편의상 절에서 행해지는 행사와 민간에서 행해지는 행사로 나누어 정리하기로 한다.

### 1) 절에서 행해지는 행사

승려들이 부처님께 재를 올리고 공양을 하며 큰 명절로 안다. 고려 시대에는 우란분회라 해서 승려와 신도들이 모여 재를 올렸는데, 조선 시대에 들어 오면서 주로 승려들만의 행사가 되었다「경도, 동국」. 승가에서는 이 날이 되면 재를 올려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였다「열양」. 이것은 흔히 우란분경에 전하는 목련존자의 일화와 관련되어 목련존자가 그 어머니의 영혼을 위하여 오미백과를 쟁반에 받들어 十方大德에게 공양했던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경도, 열양, 동국」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며, 죽은 조상의 천도를 위해 재를 올린다.

### 2) 민간에서 거행되는 행사

#### a. 조선후기문헌에 나타난 양상

「동국」에는 ‘우리나라 풍속에 백중날을 亡魂日이라고도 하는데, 대개 여염집 사람들은 이 날 저녁 달밤에 채소, 과일, 술, 밥 등을 차려 놓고 죽은 아버지의 혼을 부른다’라 하고 있으며, ‘李東岳安訥의 시에

『시장에 채소,과일이 지천인 것을 생각하니 시민 모두가 도처에서 죽은 혼을 薦新하는구나』라고 했다’는 설명도 있다. 또 ‘충청도 지역에서는 노소를 막론하고 15일에는 거리에 나가 마시고 먹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장정들이 씨름놀이도 한다’고도 했다. 「경도」나 「열양」에도 ‘서울 사람들은 성찬을 차려 산에 올라가 노래하며 춤추는 것으로 낙을 삼았다’는 설명이 있으며, ‘시정의 백성들이 서로 모여 놀이하며 즐기니, 대체로 옛날의 풍습을 따른 것이다’라는 내용도 보인다.

b. 백중의 현존 모습 ; 「종합」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재 거행되고 있는 양상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백중장이 서며, 새로 난 과실, 채소 등을 조상의 영에 천신하는 풍습이 있고, 방생의 모임을 갖기도 하며, 7월 15일을 전후해서는 호미를 씻어 보관하고 농사일에 애쓴 머슴들을 위로한다.

「충북」<sup>7)</sup> 백중을 ‘머슴날’ 또는 ‘머슴들의 생일’이라고도 한다. 농사를 짓는 머슴들은 특별히 장만된 아침상을 받고 새옷 한벌과 백중돈을 탄다. 청주 등에서는 이 날 백중장이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씨름판, 농악경연, 그네대회 등이 있어 난장판이 벌어진다. 부녀자들은 약수를 먹으러 간다. 괴산에서도 씨름판이 벌어지고 황소가 상으로 주어진다. 괴산 백중놀이는 아주 유명하기에 여기에서 잠시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sup>8)</sup> 백중날 머슴과 농사꾼들은 한달 전부터 준비한 명석 등을 팔고, 상머슴을 뽑아 관을 씌워 황소에 태우고 풍장을 앞세우며 동네집을 순회하면서 돈과 곡식을 모아 한바탕 놀고 거둔 돈은 상머슴을 준다. 간혹 상머슴이 노총각이거나 홀애비면 어른들이 상의하여 여자를 택해 결혼을 시키기도 한다. ‘백중날 상머슴 장가간다’는 속담이 있다. 중원군 목계리, 괴산군 운곡리 등에서도 상머슴 뽑기 및 백중 호미씻기가 있었다. 청원군 환희리, 영동군 호탄리, 진천군 노원리 등에도 이

7)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충청북도편, 1976, pp.527~8. 참조.

8) 이 부분은 「한국민속학대사전」, (서울, 민족문화사), p.461. 참조.

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충남」<sup>9)</sup> 조상의 사당에 천신을 드리며, 술과 고기를 마련하여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긴다. 지방에 따라서는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저녁에 망친의 혼을 불러들여 제를 지내기도 한다(망혼일). 백중일을 전후해서 백중장이 서는데, 씨름판이 벌어지거나 흥행단이 모여 든다. 머슴들은 이날 하루를 쉬며 물건을 사거나 취흥에 젖는다. 7월 15일을 전후하여 마을 형편에 적당한 날을 택하여, 농사를 잘 지은 집의 머슴을 소에 태우거나 가마에 태운 후 위로하고 흥겹게 놀기도 한다. 호미씻기 등이 행해지기도 한다.

「전북」<sup>10)</sup> 호미씻기연이나 술메기 등을 행하고, 샘도 치고 줄다리거나 농악을 쳤다. 씨름판도 있었으나 지금은 별로 안 한다. 술메기란 사다리에 가마니를 펴고 머슴을 태워 동네를 돌며 노는 것이다.

「전남」<sup>11)</sup> 백중을 俗節로 여기고, 집에서 성주께 차례를 올리는 곳이 있다. 백중날 무당은 굿을 행하기도 한다. 불교신자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절에 못가면 집에서라도 망혼의 명복을 빈다. 무당의 굿이나 백중 불공을 백중맞이라고도 한다. 지방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일년 중 명일이라 하면 정월의 설과 보름, 그리고 8월 추석과 백중을 그 하나로 쇠고 있는 경우도 있다. 남자보다는 부인들 경우에 더 허다하지만 몸이 아픈 사람은 치료를 위하여 물맛이를 한다. 백중날 농가에서는 쥐새끼 등 곡물을 해하는 잡물들을 예방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밭가에 차려 놓기도 한다. (7월 중 끝맺음 논매기가 끝나면, 머슴을 소등에다 태우고 마을을 돌며 노는 장원례 같은 것이 행해진다. 진도에서는 이와 비슷한 것을 길포냉이라고 한다.) 백중에는 유두 때와 같이 일찍부터 논밭에 가는 것을 금하는 일

9) 상동, 충청남도편, 1975, p.655. 참조.

10) 상동, 전라북도편, 1971, p.489. 참조.

11) 상동, 전라남도편, 1969, pp.660~2. 참조.

도 있는데, 이것은 이날 한창 곡식의 수확을 마련하고 있는 山神의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라와 다슬기가 많아 바닷가에서는 이것을 채취한다. 40, 50년전까지만해도 백중날 부락 행사로서 곁궁을 치며 씨름등의 놀이가 심했던 지방이 있다.

「경북」<sup>12)</sup> 군위·청송에서는 공을 드리며 행운을 기도하고, 의성에서는 추수를 해서 석존에게 기도하고 나누어 먹으며, 영덕·청도·상주에서는 떡을 만들어 먹으며 쉬고, 고령에서는 공동우물을 수리하고 물을 가신다. 선산에서는 음식을 장만하여 들과 산으로 놀이 가며, 예천에서는 점쟁이나 무당에게 가정성취의 굿을 베풀게 하고, 영일·영천·금능·문경 등지에서는 부모형제의 영혼을 위로 공양하고, 칠곡에서는 동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농악을 치며 일년 노동의 노고를 위로한다. 공동 오락으로는 윷놀이, 농악, 씨름, 그네뛰기, 약물먹기 등이 있다. 경북 일원에서는 7월에 논밭일을 마쳐놓고 술 떡으로 회식하면서 일군을 위로하고, 의성·안동·영주·예천 등지에서는 猨神에게, 그리고 봉화·상주·문경·등지에서는 農神에게, 의성에서는 용신에게 풍작을 기원한다.

「경남」<sup>13)</sup> 백중날에 차례를 지내는 곳도 있으며,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는 곳도 있고, 백중 물맞이라 하여 백중에 나리는 물은 약물이라고 하여 찬물에 목욕을 하는 곳도 있다. 밀수제비를 해 먹기도 하며, 많은 나물을 함께 무쳐 먹기도 한다. 소라가 많기 때문에 갯가에서 소라와 우렁이를 잡기도 한다.

「제주」<sup>14)</sup> 7월 14일을 백중이라 하여 이 날에는 밭에 일하러 가지 않고 바닷가로 물맞이 가는데, 이 날의 물맞이는 윗병·허리병·열병·속병 등에 좋다고 한다. 성읍리에서는 이 날 백중제가 행해지는데, 이

12) 상동, 경상북도편, 1974, p.591. 참조.

13) 상동, 경상남도편, 1972, pp.783~4. 참조.

14) 상동, 제주도편, 1974, pp.347~8. 참조.

것은 백중이라는 목동의 혼을 위로하고 농사와 축산의 풍등과 번성을 비는 무속적인 제사이다. (이외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363」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는 7월 14·15 일경 각 이(里)의 본향당을 중심으로 당굿을 하는데, 이것은 축산신인 정수남이에게 제를 올리며 마소의 번성을 비는 것이다. 이것을 간혹 백중제라 일컫는 곳도 있다.) 해안에서는 전복·소라 등을 따다.

「강원」<sup>15)</sup> 영동지역에는 백중날 특별한 행사가 없다. 영서쪽으로는 민가에서는 조상에게 百果를 가지고 천신을 드리고, 부처님에게도 백중공양을 한다. 전에는 백중차례를 지낸 가문들이 더러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찾을 수 없게 되었다. 7월이 되어 논과 밭의 김을 다 매면 호미씻이를 한다.

「함경남북도」<sup>16)</sup> 농꾼들(일꾼들)에게 삼베옷을 해주고 잘 먹고 놀게 한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도 있다.

「황해·평안남북도」<sup>17)</sup> 백중맞이라 하여 강에 가서 바가지에 밥을 해 놓고 5색기를 함께 꽂고 물에 띄운다. 자라와 거북이, 물고기 등을 방생한다. 또 이 날은 저승에서 세상밖에 나가 대접받으라고 영혼들을 다 풀어 놓는 날이라고 하여 절에 가서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제를 올리거나 만신집에 가서 조상을 위한 굿을 한다.

이상이 여러 자료에 나타나 있는 백중의 모습이다. 백중은 명칭 및 한자표기도 다양하고, 전국에 걸쳐 다양한 행사가 벌어질 만큼 우리 문화에 깊은 뿌리를 드리우고 있는 세시 중의 하나이다. 한자표기가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명절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그 의미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거행되는 행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15) 상동, 강원도편, 1977. p.622, p.643. 참조.

16) 상동, 함경남북도편, 1980, pp.270. 참조

17) 상동, 황해·평안남북도편, 1979, p.293. 참조

은 특징이 있다. 절에서는 대체로 망자의 천도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층에서 행해졌었거나 또는 행해지고 있는 것 중 공통분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① 지금은 별로 행해지고 있지 않지만 이날 차례를 지내거나 조상에게 천신을 지냈던 곳이 많다는 것 ② 절에서 불공을 드리거나 아니면 무당을 불러 백중맞이 굿을 행한 곳도 많다는 것 ③ 새로운 과일이나 채소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 ④ 물맞이를 행하는 곳이 많고 ⑤ 소라·다슬기 등이 많다고 하여 바닷가에서는 주로 이 날 이들을 채취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시할 수 있는 것은 여러지역에서 ⑥ 백중장이 서며 이 때 씨름판 등이 벌어져서 흥겨운 난장이 된다는 것 ⑦ 농사를 짓느라 고생했던 머슴들이 대접을 받으며 하루를 쉬고, 그들이 주축이 되어 여러가지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마을 공동체적 행사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⑧ 백중을 전후해서 호미씻이(세서연) 같은 것이 행해졌거나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도 한 특징이다.

이와 같은 백중행사 중 ⑦·⑧은 주로 농경과 관련되어 형성된 행사로 볼 수 있다. 백중시기가 되면 이제 논매기는 거의 끝날 때쯤 되어 한숨을 돌리기 때문에 호미는 씻어 보관하게 된다. 그리고 농사에 종사했던 머슴들은 백중날을 맞이하여 하루를 흥겹게 쉬는 것이다. 이제 머슴들은 농사를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은 다한 셈이 된다. 그래서 이 날은 일을 쉬고 대접을 받으며 여러 가지 행사판을 벌이는 것이다. 그간 백중과 관련해서 학계에 널리 알려진 것도 기실은 이와 같은 행사들이었다.

백중날 놀아지는 놀이로 유명한 것은 충북 괴산의 백중놀이, 전북 남원지방의 상동굿, 그리고 경남 밀양의 백중놀이가 있다. 이들은 모두 농경 또는 농사를 짓는 일들과 관련있는 행사들인데, 백중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에서는 잠시 밀양 백중

놀이의 내용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sup>18)</sup> 밀양에서는 흔히 백중을 머슴날이라고 하며, 이 날의 놀이를 ‘뽕배기참놀이’라고 한다. 놀이는 주로 농신제·작두말타기·춤판으로 이어지는데, 앞부분에서 행해지는 농신제는 바로 農神에 대한 제의를 행하는 것이다. 농신대는 껍질 벗긴 삼대 360개를 뭉쳐 이것을 네마디로 묶고 가장자리는 비스듬히 끈으로 비껴매어 매어 땅에 세운다. 그리고 맨 위에는 당년 1월 상순의 진날이 몇째 날인가를 헤아려 숫자대로 흰새끼를 두른다. 북을 울려 강신이 되었다 생각하면 고사소리를 하고 이어 음복을 한다. 이 때 개인적으로 미리 쌀·콩·기원문 등을 넣은 주머니를 준비해서 여기에 매달기도 한다. 이어 여러 농요나 어사용을 부르면서 어울려 노는 것이 농신제의 내용이다. 작두말타기는 농꾼들이 뽑은 상머슴을 소의 등에 거꾸로 태우고 작은 삿갓을 씌워 동네의 골목을 도는 것이다. 지금은 소대신 작두말을 탄다고 한다. 이어서 벌어지는 춤판에서는 양반·병신들·뽕부등으로 변장한 사람들이 나와 어울려 춤을 추고 논다.

이와같은 놀이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농신에 대한 제의가 행해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백중이라는 세시가 원래 농경, 또는 농사신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줄 수도 있다. 이어서 행해지는 작두말타기는 다른 지역에서 놀아지는 진세식이나 장원례, 장원질, 술매기, 길꼬냉이 등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백중날의 행사에서 농경신에 대한 제의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백중이 원래 농경과 관련된 어떤 날이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경북 일원에 畵神이나 農神에게 풍작을 기원하는 제의가 있었다는 것도 이러한 추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절에서의 행사는 예외이지만, 우리 민족의 기층을 차지하는 민간층에서 행해지는 백중의 행사는 앞서와 같이 원래는 농경과 관련되어 있

18) 「한국민속대사전」 1, (서울, 민족문화사, 1991), pp.580~83. 참조

었던 흔적이 아주 강하다. 그리고 유사한 행사들이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는 이 날 차례를 지냈던 흔적도 있는 것이다. 백중이 우리민족의 기간 산업이었던 농경과 깊은 관련이 있고, 또 이 날 조상을 제사하는 일련의 행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백중은 우리문화에 있어 아주 중요한 세시 중의 하나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백중은 관련 내용으로 보아 우리문화에 있어 하나의 큰 맥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중·남부 지방에 있어서는 단오보다 강하며, 추석에 버금가는 명절이라는 느낌이 뚜렷한 것이다’라는 학설도<sup>19)</sup> 이렇게 보면 매우 타당성이 있다. 그렇다면 백중은 원래 어떤 날이었기에 이처럼 우리 문화에 깊은 뿌리를 드리우고 있는 것인가? 그 기원적 성격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우리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 것일까?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해명해 보기 위하여 백중의 기원적 사실을 알려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신화 한 편을 소개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백중의 기원과 성격을 논해 보기로 한다.

### Ⅲ.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의 내용과 의의

백중은 百種이라고도 하여 그 의미가 곡식종자와 결부되어 해석되고 있고, 또 이 날 농경신에 대한 제의가 있어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백중은 특히 농경과 관련되어 의미를 가지게 된 어떤 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앞서의 여러 사실이 백중과 농경이 관련 있음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음력 7월 14일이 우리민족의 농경기원일임을 알리는 신화가 있어 백중이 가진 앞서의 사실을 뒷받

19) 장주근(1984), 「한국의 세시풍속」 (대구, 형설출판사) p.269

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신화는 바로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속제의 중 큰굿 속에서 심방(무당)에 의해 불리우고 있는 〈세경본풀이〉라는 신화다.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서 그 성격이나 의의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 1.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의 내용

제주도의 무속의례 중 큰굿에서 불리우고 있는 세경본풀이라는 신화가 실려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朝鮮巫俗의 研究」, 「남국의 무가」, 「韓國의 民間信仰」(자료편),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등이 있지만,<sup>20)</sup> 이 외에도 이 신화는 더 많은 자료에 소개되어 있다.<sup>21)</sup> 여기에서는 이외의 자료도 참고하지만, 대체로는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의 내용을 중시하면서 신화 내용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sup>22)</sup> 이 자료에 의거하면, 세경본풀이라는 신화는 현재 제주도 큰굿 31개 제차 중 17번째 제차인 ‘세경본풀이’라는 제차에서 불리우고 있다. 이 의례에서 심방은 신을 맞이하는 제의에서 의례적으로 행하는 몇개의 작은 제차들을 행하고 이어서 이 신화를 구송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경신의 하르방, 할망, 아방, 어명과 상세경, 중세경, 하세경이 누구

- 
- 20) 赤松智城·秋集隆(1937), 「朝鮮巫俗의 研究」(서울, 조선총독부)  
장주근(1976), 「韓國의 民間信仰」(일본, 金花舍)  
진성기(1968), 「남국의 무가」, 제주민속문화 총서  
현용준(1980),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서울, 신구문화사)
- 21) 현용준(1976), 「제주도신화」(서울, 서문당)  
진성기(1980), 「남국의 무속서사시」(서울, 정음사)  
「한국구비문학대계」9-1(1980),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한상준(1980), 「한국인의 신화」(서울, 문음사)  
박경신(1986),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가지 특징”, 「국어국문학」 96, (서울, 국어국문학회)
- 출고(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대박사학위논문), pp.41~6.
- 22) 현용준(1980),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서울, 신구문화사), pp.315~62.

라고 설명하고, 이어 세정신의 난산국을 푼다고 말한 후 본 신화를 구송한다.

① 집안이 부요하나 늙도록 자식이 없어 걱정을 하던 김진국대감과 조지국(조진국)부인은 권재삼문을 받으러 온 대사의 말을 듣고 동개남은중절에 원불수룩[아이낳기를 기원하는 제의]을 드리러 간다.

여기까지는 각 자료가 비슷하나 다음 내용은 자료에 따라 조금 다르다.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동개남은중절에 많은 물건을 시주하고 백일 동안 시주를 드리나 시주한 물건이 백근이 못찬 아흔아홉근이라 딸을 낳고 이름을 자청비라 짓는다.

「朝鮮巫俗의 研究」: 시주할 물건을 신고 동개남은중절에 가다가 도중에 서개남백금사 중을 만나 그곳으로 가서 원불수룩을 드린다. 동개남은중절 대사는 이것을 꽤심히 생각하고 조화를 부려 부부에게는 딸을 점지하고, 하녀에게는 아들을 낳게 한다.

「남국의 무가」: 조진국부인은 여자의 마음이라 시주할 물건에서 반근을 덜어낸다. 그리고 동개남은중절로 가다가 도중에 길을 바꿔 서과남의무광절에 가서 원불수룩을 드린다. 동개남이은중절의 대사는 두가지를 꽤심히 생각해 부부에게 딸을 점지한다.

② 열다섯이 된 자청비가 빨래를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문도령이 그녀를 보고 반하여 마실 물을 달라고 한다. 자청비가 버들잎을 띄워주니 문도령이 화를 내는데, 자청비는 급하게 마시다 체할까봐 그랬다고 한다.

③ 자청비도 문도령을 보고 반하여 남장을 하고 그를 따라 서당으로 글공부를 떠난다. 삼년을 함께 지내나 기지로써 자신이 여자임을 속인 다.

④ 문도령이 장가를 가기 위해서 하늘로 돌아가게 되자, 두 사람은 함께 서당을 떠나 집으로 온다. 도중에서 목욕을 하다가 자청비는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고, 문도령은 여장을 한 후 자청비의 집에서 함께 지낸다. 석달 후 문도령은 본매(信物)를 나누어 갖고 하늘로 돌아간다.

⑤ 자청비네집 우마를 각각 아홉마리씩이나 잡아 먹은 자청비네 집 남종 정수남은 혼이 날까봐 거짓으로 산에 문도령이 노는 것을 보다가 우마를 잃었다 하고, 이 말을 들은 자청비는 문도령을 만나러 그를 따라 산으로 가나 속은 것을 안다. 겁간하려는 남종을 죽이지만, 이 일로

인해 그는 집을 쫓겨난다.

⑥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여러가지 생명꽃이 피어 있는 〈서천꽃밭〉에 간다. 그곳에서 부엉새를 잡아 주는 공을 세우고 사위가 되어 생명꽃을 얻어와 남종 정수남을 살리나 이 일로 인해 다시 집을 쫓겨난다.

⑦ 청태국할망의 수양딸이 된 자청비는 하늘나라 문도령에게 갈 비단을 짤 때 자신의 이름을 짜 넣어 보내고, 이를 본 문도령이 자청비를 보러 지상에 내려 오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

⑧ 청태국할망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머리깎고 중이 되었다가 문도령이 내려보낸 선녀들을 도와주고 함께 하늘로 올라 문도령을 만난다.

⑨ 문도령은 부모에게 자청비와 결혼할 것을 청하고, 자청비는 어려운 시험(선자 구덩이속에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칼선다리를 놓고 여기를 통과하는 일)을 통과한 후[통과의례 initiation], 마침내 문도령과 결혼한다. 문도령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서수왕따남애기는 이열에 바쳐서 자살하여 죽고 온갖 사기(邪氣)를 불러 일으킨다.

⑩ 자청비는 전에 〈서천꽃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문도령을 그곳에 보내 보름씩만 사위노릇을 하게 한다.

⑪ 하늘나라의 선비들이 아름다운 자청비를 푸대삼하기 위해 술잔치를 벌여 문도령을 죽이고자 한다. 자청비의 기지로 술잔치에서의 죽음은 모면하나 외눈할망에게 속아 결국 문도령이 죽는다.

⑫ 자청비는 여러가지 기지로써 푸대삼을 모면하고 〈서천꽃밭〉으로 가서 생명꽃을 얻어와 문도령을 살린다.

⑬ 하늘나라에 변란이 일어나자 자청비는 〈서천꽃밭〉에서 수레멜망 악심꽃[죽음의 꽃]을 가져와 이것으로 난을 진압한다.

⑭ 자청비는 이 공으로 ‘오곡’과 ‘열두시만국’을 얻고 문도령과 함께 칠월 열나흘 인간세상에 내려온다. 이 때 심방은 “……그 때 내온 법으로 칠월 열나흘(七月 十四日) 백중살이가 돼옵네다” 라고 구송한다.

⑮ 자청비는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남종 정수남을 만나 자신의 부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정수남에게 점심을 주지 않았던 아홉형제에게는 급병을, 그들의 소에게는 열두풍문을 주고, 그 받은 흉년이 되게 한다. 반면에 정수남에게 밥을 준 두 늙은이의 밭에는 풍년을 준다.

⑯ 정수남을 목축신으로 좌정시켜 마블림제[우마의 증식을 비는 제]를 얻어 먹고 살게 한다.

⑰ 오곡씨를 마련하다 보니 메밀씨를 잊은 것이 생각나 다시 하늘에 가서 가져 온다. 때문에 메밀은 시기가 조금 늦게 되었다.

⑱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으로 좌정하고, 정수남은 하세경이 되어 7월 마블림을 받아 먹도록 마련되었다.

…즈부일월 상세경의 난산국이었다고 말한다.

세경본풀이신화는 원래 아주 길고 복잡하다.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히 요약해도 이렇게 길다. 내용 중 … 부분은 이것이 세경신, 즉 농경신에 대한 제의를 행하면서 구송되는 것이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심방은 어떤 본풀이(신화)를 구송할 때 항상 이렇게 “……신의 난산국을 푼다”, 또는 “……신의 난산국이었다”고 하면서 신화를 시작하고 끝맺는데, 이것은 ……에 해당되는 신의 근본 내력을 풀어 설명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면, 본 신화가 구송되는 제의가 어떤 신에 대한 제의였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세경신 곧 농경신에 대한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 2. 〈세경본풀이〉 내용의 신화론적 의미와 의의

신화 세경본풀이는 세경신에 대한 근본 내력을 설명하는 신화이다. 세 명의 세경신 중 가장 중요한 신은 물론 여신인 중세경 자청비다. 이 신은 하늘에서 공업을 세우고 이 공으로 ‘열두시만국’과 ‘오곡종자’와 ‘메밀씨’를 얻어와 우리에게 주고, 남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풍농을 가져다 주는 신이다. 오곡종자와 메밀씨를 전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 신은 우리 민족의 농경기원신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신이 제의에서 숭앙되는 것은 이러한 공업과 신직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신화는 농경신에 대한 제의속에서 불려지는 것이면서 우리민족의 농경기원을 알린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농경

신에 관한 신화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내용이 농경 및 풍농적인 요소와 맞물려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논한 바 있기에<sup>23)</sup> 여기서는 간단히 이 내용을 요약해 보기로 하겠다. 이것을 살피는 이유는 이 신화가 얼마나 농경기원신화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는가를 살피, 농경신화로서의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나를 추찰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1) 농경신이 여성신인 것의 의미

농경신인 상세경, 중세경, 하세경은 문도령과 자청비 부부, 그리고 자청비네의 남종인 정수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신은 자청비라는 여신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 오곡 종자와 메밀씨를 가져다 주는 신이 바로 이 신으로 나타나는 점, 그리고 이 신화가 자청비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는 점 등에서 파악된다. 농경신이 여성신인 것은 세계보편적인 현상이라 하는데 이것은 애초에 농사짓는 일을 대체로 여자가 맡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성뒤에 가로 놓여진 생산과 번식의 신비로부터 연유했다고 볼 수 있다. 세경본풀이에는 농경신인 자청비가 여성이 한달에 한번 거처야할 法之法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아도 이 신화를 창조한 집단은 여성을 생산과 관련지어 생각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결국 이 신화속에서 주인공으로 여신이 중시되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농경에 있어서의 잉태·열매맺음·번식능력이 자연체계 속에서 우이 가진 속성, 곧 생산·번식·잉태 능력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3) 줄고(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대박사학위논문), pp.148~152.

줄고(1990),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1집, pp.161~7.

## 2) 주제로 나타난 애정성취담의 신화적 의미

세경본풀이는 시종일관 자청비와 문도령의 사랑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신화이다. 그들이 처음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맺고 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만나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는지, 이어서 마침내는 어떻게 농경신이 되었는지를 이 신화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농경기원신화에 특히 이처럼 남녀간의 사랑이 주제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농경에 있어 곡물의 수확이 ‘암수의 결합에 의한 열매맺음’이라는 논리적 원리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남녀의 결합으로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신화형성 집단은 이러한 사실로부터 유추하여 식물 역시 암수의 결합에 의해 열매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풍농을 얻고자 하는 심정에서 신화속에 이와같은 신들의 애정결연적 요소를 많이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신화에 특히 〈남장〉과 〈여장〉을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것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문도령은 한 번 여장을 하지만 자청비는 두번이나 남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남성의 여성화, 혹은 여성의 남성화는 남녀양성의 내재적인 성결합, 즉 양성구유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우주적 풍요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3) 농경신과 목축신과의 상관성

세경본풀이에는 농경신으로 세 신이 등장하는데, 이 중 하세경인 정수남은 우마를 담당하는 목축신이다. 목축신이 농경신과 함께 제의되고, 농경신에 대한 본풀이 속에 목축신에 대한 내용이 함께 구술되는 것은 농경과 함께 가축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목축신이 되는 정수남이 자청비라는 신의 종으로 설정된 것은 농업을 위해 마소가 이용되던 것의 비유적 표현이며, 이들이 주종관계로 된 것은 가축사용을 농경의 종속적 관계로 파악한 것이다.

또 농경시에 마소의 힘을 이용했던 것이기에 목축신은 특히 힘의 상징인 男종으로 형상화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이 신화는 많은 부분이 농경 및 풍농적인 요소와 맞물려 있다. 이러한 성격은 이 외에도 더 많이 있다. 그러나 앞서의 고찰만으로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충분히 드러났으리라 보아 여기에서 그치기기로 한다. 이 신화에 나타나는 바 농경적 요소와 맞물려 있는 많은 부분은 이것이 농경신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기 위하여 애초부터 이렇게 구성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농경신화 원래의 고유의 내용들로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세경본풀이 신화를 통해 알 수 있는 몇가지 사실 중 본 논문의 연구 주제와 관련시킬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 신화는 세경신, 즉 농경신에 대한 제의에서 불려지고 있는 신화다. 농경신에 대한 제의와 같은 것은 현대에 이르러 새롭게 형성되거나 창조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이것은 비교적 오래된 문화가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인가 고대에 농경신에 대한 제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도 추정할 수가 있다. ② 이 신화는 자청비라는 여신이 하늘로부터 오곡종자와 메밀씨를 가져와 우리에게 주고 농경신이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바로 우리민족의 농경기원신화라 할 수 있다. ③ 자청비라는 여신이 오곡종자를 갖다 주는 날은 바로 음력 칠월 열나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신화에서는 이 신이 행한 바의 오곡과 열두시만국을 얻고 지상으로 내려온 일에 의거하여 그 때 낸 법으로 칠월 열나흘이 백중살이가 되었다고 하고 있다.

음력 칠월 열나흘이라는 날짜와 이 날이 농경과 관련된다는 점, 그리고 그 명칭이 백중이라고 말해진다는 점에서 이것은 앞서 고찰한 바의 백중의 내용들과 일치하는 그 무엇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것이 우리 나라 백중의 기원과 상관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다음에는

먼저 세경본풀이의 문화사적 위상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 볼까 한다. 그리고 이것에 이어 백중의 기원 문제를 논해 보기로 하겠다.

#### IV. 제주도 무속신화 〈세경본풀이〉의 문화사적 위상

세경본풀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큰굿 중 농경신에 대한 제의에서 불려지고 있는 신화이다. 큰굿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신화의 신화적 위상이나 혹은 문화사적 위상은 제주도 큰굿의 위상이 밝혀질 때 자연스럽게 함께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 큰굿의 위상을 언급하면서 함께 세경본풀이의 그것에 대해서도 말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는 민족 종교로서 무속이 있다. 이것은 신이 실재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무당이 이들 신에게 제의를 베풀면서 신에게 우리 인간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다. 무당은 무신도, 또는 신화를 통해 신의 모습을 구체화시키고 제의를 행하기 때문에, 무속제의에서는 대체로 신의 내력담인 신화가 구송되기 마련이다. 구비 전승되는 것을 참조하면 무속제의는 원래 열두거리 큰굿이 그 본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제주도의 큰굿은 현재는 31개의 제차로 이루어져 있지만, 연구해 보면,<sup>24)</sup> 이것은 원래 열두거리의 구조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구조는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열두거리 큰굿의 구조적 성격이나<sup>25)</sup> 신화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 내용에 담겨 있는 고태

24) 졸고(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참조  
 졸고(1990), “제주도 큰굿의 구조적 원형 및 문화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7집, (서울, 제주도연구회) 참조

25) 졸고(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대박사학위논문) 참조

성들, 그리고 이 신화의 내용들이 본토에서는 무속제의와 전설·민담·소설 등에 남아 있는 것 등을 참고하면, 제주도의 큰굿은 바로 우리민족의 고대적 제의양태인 열두거리 큰굿과 여기에서 불려졌던 신화들이 제주도가 섬이기에 여기에 잔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상당히 오래된 고형의 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제주도의 큰굿과 신화가 원형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구비전승되면서 이것은 많은 변모가 일어났다. 그래서 현재 제주도의 큰굿은 열두거리가 아니라 31개 이상의 개별제차로 행해지고 있기도 하고,<sup>26)</sup> 신화 내용도 구송자에 따라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와 같은 여러 이유에서 매우 고형의 문화가 섬지방인 제주도에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주도에 이처럼 고문화가 남아 있게 된 것은 물론 제주도가 가지는 지리적·인문적 환경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큰굿 열두거리 중 농경신에 대한 제의는 여덟번째로 행해졌던 것 같다. 이것은 아홉번째 제의였다고 생각되는 풍농신(白蛇)에 대한 제의와 짝이 되면서 우리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먹을 것(食)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해진 것이다. 큰굿은 이들에 앞서서는 우주창생에 대한 관심과 인간 삶의 존재론적인 차원인 生死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일곱가지 제의가 이루어졌고, 뒤에는 주거공간과 혈통에 대한 관심에서 성주신, 본향신, 그리고 조상신에 대한 제의가 이루어졌다.

전세계에는 많은 민족이 농경기원신화를 갖고 있다 하는데, 세경본풀이는 우리민족도 세계에 보편하는 신화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

26)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서울, 신구문화사). 여기에는 큰굿의 개별제의가 31개 제차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혹자는 어떤 심방이, 어떤 상황에서 굿을 행하는가에 따라 그 수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본토에서도 상황에 따라 큰굿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면, 이러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밖에도 이것은 여러 면에서<sup>27)</sup> 앞으로 상당히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런데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여 농경이 시작되었나를 설명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큰굿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그 형성이 상당히 오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V. 백중의 기원 및 성격

이상에서는 현재 제주도에 남아 전승되고 있는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의 내용과 문화사적 위상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오래된 고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와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세경본풀이와 앞서 살핀 백중의 내용을 관련시키면서 백중의 기원과 성격을 논해 보기로 하겠다.

### 1. 백중의 기원

세경본풀이라는 농경기원신화의 내용은 우리나라 세시풍속 중의 하나인 백중과 몇가지 점에서 일치하는 성격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날짜와 명칭, 그리고 이 날 행해지는 행사의 일부 성격이 같은 것이다. 이 점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음력 7월 15(14)일이라는 날짜상의 일치

백중은 주지하다시피 그 날짜가 음력 7월 15일이다. 그런데 세경본

---

27) 이 신화는 우리 민족의 농경기원을 알린다는 점, 백중이라는 세시풍속을 형성한 신화라는 점, 뛰어난 문학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여성영웅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본토에는 이 신화와 관련된 내용이 민담·소설 등에 나타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시되어야 할 신화라 생각한다.

풀이에는 농경신인 자청비가 우리에게 오곡종자를 전해 주는 날이 바로 음력 칠월 열 나흘이라 하고 있다. 14일과 15일에는 하루의 간격이 있으나 이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실제로 우리 세시풍속 중 가장 큰 의의를 가지고 있고, 또 가장 많은 행사가 행해지는 상원인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표기되지만, 실제 많은 행사가 행해지는 것은 14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루의 간격은 백중일을 헤아리는데 큰 지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 2) ‘백중’이라는 명칭상의 일치

음력 7월 15(14일)일을 우리는 백중·백중, 또는 중원이라고 한다. 백중을 뜻하는 한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명칭 중 가장 보편적으로 말해지는 것은 백중이라는 말이다. 세경본풀이 신화 자료 중 “칠월 열 나흘 백중살이가 되웁니다”라는 부분[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362. 안사연구연본]에는 백중으로, 그리고 “일년 백중이면 말머리고사를 드립니다.”[「朝鮮巫俗의 研究」, p.460. 박봉춘연구연본]라는 것에서 보면,<sup>28)</sup> 이것은 백중으로도 말해진다. 그런데 제주도의 각 분향당에서 음력 7월 14·15에 행해지고 있는 행사로 백중제가 있는 것을 보면,<sup>29)</sup> 이것은 백중이라고 말해지는 것이 보통이 아닌가 한다. 백중이든, 혹은 백중이라 말하든 이것은 명칭상 일치하는 것이기에 별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 3) 농신에 대한 제의상의 일치

28) 그런데 이 자료는 자청비가 오곡종자를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내용과 후에 매밀씨가 없음을 알고 다시 하늘에 올라 그것을 가져오는 내용, 그리고 자청비가 세경신, 정수남이 우마를 맡는 신이 되는 것은 여타의 자료와 같으나 그 날이 7월 14일이라는 것은 빠져 있다.

29)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서울, 신구문화사). p.363.

앞서 살핀 것처럼 백중날 본토에서 행해지는 행사에는 농경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밀양 백중놀이에서 나타나는 〈農神〉에 대한 제의 및 여타의 지역에 나타나는 그것, 그리고 머슴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이 모두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백중이 특히 농신, 또는 농경과 관련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세경본풀이를 보면, 백중은 바로 세경신, 즉 농경신과 관련되어 형성된 날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둘 사이에는 상통하는 그 무엇이 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현재 전하는 백중의 여러 사항과 무속제의에서 불리우는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가 전해 주는 사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백중이라는 세시풍속의 기원이 바로 이 신화가 전하는 것처럼 우리민족의 농경기원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신화란 原古의 시대에 이루어진 신들의 행위에 비롯하여 현존하는 자연환경의 제현상이나 인간사회의 의례, 또는 의미있는 모든 인간 행동의 범례를 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sup>30)</sup> 따라서 신화속에는 반드시 창세의 원리 및 수많은 의식이 마련되는 이야기(의식의 기원)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제주도의 큰굿에서 불리우는 신화속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많다. 농경신에 관한 본풀이인 세경본풀이 속에도 여러가지 인간사 법칙이 마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중도 바로 그 중의 하나가 된다. 백중은 바로 자청비라는 여신이 하늘신으로부터 ‘열두시만국’과 ‘오곡종자’를 받고 지상으로 내려와 우리 인간에게 전해준 날이 음력 칠월 열나흘(7월 14일)이기에, 이러한 신의 일에 기인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 만큼 직접 자료를 통해 살펴 보기로 한다.[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

30) 멜시아 에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역(1982, 서울, 형설출판사), p. 444.

大林太浪(1966), 「神話學入門」, (일본, 中央公論社), pp.48~50.

왕빈(1980), 「신화학입문」, (서울, 금란출판사) p.18, p.44. 참조

전」, p.361~2]

(자청비가) 세번난을 막아노니, 천제왕 백제왕의서 땅 한 착 물 한 착 내어준다. 자청비가 천제왕 백제왕아피 등장들 때  
 “오곡 열두시만국이나 내어줍서”  
 시만국을 내어주시 문도령을 거느리고 칠월 열나흘날 인간에 내려사,  
 그 때 내은 법으로 칠월 열나흘 백(백)중살이가 됩니다.

백중의 기원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은 백중이 자청비라는 여신이 오곡과 열두시만국을 가지고 문도령과 함께 칠월 열나흘 지상으로 내려온 일에 기원하여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백중은 자청비라는 여신, 즉 농경신의 일에 기원하여 생긴 우리의 명절이며, 그 성격은 바로 우리의 농경기원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백중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대체로 ① 신라의 가배와 결부하여 이해되기도 하고<sup>31)</sup> ② 절에서 행해지는 藥水浴이나 조상의 천도, 또는 우란분재와 관련하여 이것이 목련존자의 일에서 형성된 불교적 행사로 말해져 오기도 하였다. 즉 이것은 우란분경에 전해지는 바,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많은 죄를 지어 죽은 뒤 아귀도에 떨어져 고통을 받을 때 목련존자가 그 어머니의 영혼을 구제하고자 석가모니에게 애원하여 그의 지시로 7월 15일에 五昧百果를 쟁반에 받들어 十方大德에게 공양하여 그 어머니의 영혼을 구제하였다는 불교설화에 기인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sup>32)</sup> 그리고 ③ 최남선이 ‘농

31) 「열양세시기」 7월 중원조.

32) AD 6C경 중국사람 종놈에 의해 쓰여진 중국 세시기인 「형초세시기」에도 백중의 기원을 목련존자의 일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7월 중원조에도 이처럼 설명되어 있다. 한편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권 42에서도 백중의 의미를 부처님께 百種之物로써 제를 지내고 기복을 비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 진행상의 어느 계단에 있는 일행사와 불교 도교의 요소등이 잡유하여 특수한 일 형태를 구성한 절일로 볼 것'이라고 한 이래,<sup>33)</sup> 이것이 농경과 관련된 명절일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 선학들이 언급해 왔는데 ④ 제주도에서 전해지는 백중이라는 목동이 죽어 농신이 되었다는 설화에 근거하여<sup>34)</sup> 백중이 고대에는 農神祭日이었을 가능성도 타진된 바 있다.<sup>35)</sup> 백중의 기원을 설명하는 관점은 이외에도 더러 있지만,<sup>36)</sup> 이상이 대체로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백중이 우리민족의 농경기원일과 관련하여 형성된 명절일 가능성이 있음을 농경기원신화인 세경본풀이를 근거로 밝혀 보았다. 이것으로서 그간 여러 선학들이 막연히 추정해 왔던 백중과 농경과의 관련설이 사실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백중의 기원을 제주도에서 전해지는 '백중이라는 목동의 전설'과 관련해서 이것을 고대의 농신제일로 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겠으나, 전설 같은 것보다는 신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을 얻지 않을까 한다. 고대의 제의에서 불렸던 신화는 문화력을 형성하는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세경본풀이는 신화 내용상, 제의의 성격상, 그리고 제주도 큰굿이 차지하는 문화사적 위상에서 볼 때, 고대에 본토에서도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33) 최남선(1948), 「조선상식」 세시편 백중.

34) 여기에 이 내용을 요약·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차꿩뎡 뒤에는 백중이라는 목동이 살았다. 하루는 하늘의 옥황이 내려와 바다의 거북을 불러 밤에 석자 다섯치의 비를 내리고 풍우대작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을 몰래 엿들은 백중은 걱정이 되어, 거짓으로 옥황의 소리를 내어 아가는 잘못 말했다 하고, 비는 다섯치만 내리게 하고 바람은 불지 않게 하라 하였다. 하늘의 옥황은 자기 명령대로 되지 않은 것을 알고 노하여 백중을 잡아들이라 명하였다. 백중은 벌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여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 덕분에 대풍작을 거둔 농민들이 백중을 기리어 해마다 그가 죽은 날인 7월 14일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진성기(1968), 「남국의 전설」, 서울, 일지사, pp.92~94]

35) 「한국민속대관」 4, 세시풍속 전승놀이편, (고대, 민족문화연구소편) p.235.

36) 박계홍(1987), 「증보한국민속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p.396에서는 백중행사가 특히 충청도지역에 짙게 전승되는 것에 기인하여 백중을 百終이라 보고 백제가 망한 날과 관련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잔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은 무어라 단언할 단계는 아니라고도 했다.

본토에서는 함경도 지역의 무속 자료에 이 신화의 부분적인 내용이 남아 전하고,<sup>37)</sup> 이 신화의 일부 내용들은 민담으로 많이 떠돌고 있는데,<sup>38)</sup> 이것을 세경본풀이 신화의 조각들이라 본다면, 이것은 본토에서도 이와같은 신화들이 구송되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옛날 열두거리 큰곳으로의 무속제의가 처음의 모습으로 본토에서 행해졌을 때 여기에는 농경신에 대한 제의가 있었고, 이 속에서 세경본풀이와 같은 신화가 구송되었으며, 이와같은 신의 일 또는 신화의 일에 기원하여 백중이 마련되어 이 날을 기념하면서 백중은 우리나라 세시풍속의 하나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2. 백중의 성격

백중은 그 기원을 농경기원일과 관련하여 형성된 세시풍속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농경신이 오곡종자를 가져다준 날이었기에 이 날이 간혹은 百種이라 하여 그 이름속에 종자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보면, 「경도잡지」 中元조에 ‘혹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날 옛풍속에 백가지 곡식의 씨를 진열하였으므로 백중이라 한다고 했는데, 이는 황당무계한 설이다’라 한 부분은 사실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다. 작가는 황당하다고 했지만, 이 내용은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그 당시까지만해도 백중을 곡식종자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바로 백중이 오곡종자를 가져다 준 농경신과 관련된 날이기에 이 때까지만 해도 백중 또는 백중이 이처럼 오곡종자와 관련하여 말해져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7) 장주근·임석재(1965), 「관북지방무가」, 중요무형문화재지정자료, p.137, ‘문굿’.

38) 여기에 대해서는 필자가 지금 일부를 연구하여 발표하고 있는 중이다. 일차적인 작업을 구비문학연구회(가칭) 1992.8월 모임에서 발표했다. 「논문제목 - “설화에 나타난 버들잎 화소의 서사적 기능과 의의”」

백중의 기원이나 성격을 앞서와 같이 보면, 백중은 고대에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농경이나 농사가 우리의 식량과 관련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명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살펴 본 것처럼, 우리 민속에는 백중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다. 그리고 백중은 따로 장이 설만큼 큰 명절이었다. 이들은 모두 백중이 그만큼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백중이 이처럼 중시될 수 있었던 것은 고대로부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명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일년 중 명절이라 하면 설과 대보름, 그리고 백중과 추석이었다는 앞서의 자료「전남지역」 내용도 백중이 원래는 이런 성격을 가진 명절이었음을 알려 준다. 무속제의가 큰곳 열두거리를 본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것은 원래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던 행사였을 것이다. 그리고 후대에 이르면서 무속적 제의의 약화와 함께 이것은 민간층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나 민가에서는 농신에 대한 제의를 행하면서 즐겁게 놀고, 특히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날 단단히 휴식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타의 백중놀이들이나 호미씻이, 세서연 등의 행사들은 모두 이와같은 기원과 관련을 가진다고 본다. 큰곳 열두거리의 성격을 보아도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그 외의 문화양상들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우리민족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기 전부터 이미 조상에 대한 숭배사상이 있었다.<sup>39)</sup> 백중이 아주 큰 명절이었기에 이 날 특히 조상에 대한 제사를 행하거나 혹은 죽은 조상의 저승에의 천도를 위해 절에서 행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sup>40)</sup> 백중의 기원을 이와같이 보면, 백중은 원래 우리나라 고대의 농

39) 장주근(1983), “한국민간신앙의 조상숭배” 「한국문화인류학」 15집. (서울, 문화인류학회). 「한국민속논고」(서울, 계몽사, 1986)에도 이 사실이 연구되어 있다.

40) 절의 성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하겠으나, 절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聖殿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백중날의 행사도 원래는 불교 수용 이전부터 절을 중심으로 행해져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廾祭<sup>11</sup>이었던 것이 삼국시대 이후 불교의 우란분회의 영향으로 그 원래의 민속적 의의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기존의 학설은<sup>41)</sup>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백중의 기원적 성격을 이와 같이 보면, 백중이란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는 것은 매우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란분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것의 기원은 원래 불교에서 생겨난 것인데, 불교에서는 특히 이 날을 우란분이라고 일컬고 시작된 년도는 중국 양무제 대동 4년에 의거, 우리나라는 신라 법흥왕 3년, 백제는 성왕 16년, 고구려는 안원왕 18년으로서 서기 538년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sup>42)</sup> 중국사람 종נם(498~561)이 쓴 형초세시기에도 백중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 백중의 시작은 적어도 56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백중의 시작이 538년에 형성되었다고 보면, 이 때 이르러 비로소 시작된 백중행사가 어떻게 민간의 생활풍습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형초세시기 같은 것에 것처럼 자세히 기록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행사가 연중의례로 규정되어 세시기에 기록하려면 적어도 많은 세월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둘 사이에는 시기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백중의 기원을 이처럼 불교적인 것하고만 상관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문화의 기층에 민간층 중심의 놀이인 농경과 관련된 백중행사들이 어째서 이처럼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는가가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백중의 시작은 시기적으로 훨씬 거슬러 올라 가고 그것은 농경과 관련되어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세경본풀이가 무속제의 속에서 불리우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시기는 우리민족의 고대적 제의였다고 생각되는 열두거리 큰굿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해명되어야 할 일

41) 「한국민속대관」 4,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p.235

42) “一中元節—白種의 由來”, 「法施」11, (法施社編)(1968.8)

과 맞물려 있다. 그런데 백중의 성격이 농경신에 대한 제의, 농경기원 일을 기념했던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 시기가 상당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의 형성은 적어도 제의시대, 또는 신화시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하여 발표해 보기로 하겠다.

왜 하필이면 음력 7월 15일이 농경기원일로 정해졌던가 역시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 날 오곡종자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관련지으면, 이것은 아마도 농사의 수확과 관련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오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이러한 시기가 정해진 이유나 또는 그 시작 장소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또한 그것이 발농사와 관계된 것인지, 아니면 논농사와 관련하여 형성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다만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달문화와 상관되어 정해진 것은 분명할 것이다. 만월인 보름달은 우리문화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기인데,<sup>43)</sup> 이것은 흔히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대보름은 上元으로, 백중은 中元이라 말해져 왔다. 元을 으뜸, 기본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백중을 중원이라 한 것에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한 시기 또는 시절로 관념했음이 드러난다. 우리 민속에는 상원인 대보름에 많은 행사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 점을 감안하면, 백중은 상원에 버금가는 의미있는 날로 생각했었던 흔적이 여기에 깃들여 있다. 우리는 음력 7월 15일을 백중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표기에서는 흔히 백중이라고 써왔다. 여기에는 말과 표기 사이에 음운상의 괴리가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백중을 설명할 때, 심방은 흔히 이

43) 장주근(1986), “한국의 농경과 세시풍속” 「한국민속논고」, (서울, 계몽사), pp.444~5에도 중국은 重日 名節을 중시했고 우리는 일찍부터 보름달이 떠오르는 시기를 중요한 시절로 생각해 왔다고 하였다.

것을 백중대제일이라 하고 있다. 현용준 교수는 이것을 ‘百中人祭日’로 설명하고 있는데,<sup>44)</sup> 여기에는 백중이 여러 祭日 중 가장 큰 祭日이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제주도 큰굿내의 신화를 보면, 큰굿집단은 百字를 완성수로 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중시하면, 백중이란 말은 祭日 중에서도 가장 큰 祭日, 가장 완성된 祭日이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백중이란 말은 이 날을 아주 중요하고도 중시할 만한 날로 인식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명칭인 것이다. 또한 이렇게 볼 때 이것이 중원이란 말로도 불리울 수 있게 된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제의와 상관하여 형성·구송되고 있는 우리의 신화가 백중은 우리 민족의 농경기원일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기에 백중은, 비록 여기에 대한 기록이 형초세시기에 나온다 해도, 중국으로부터 수용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오히려 지금은 중국땅으로 되어 있는 곳에 왜 이런 세시가 남아 있게 되었나를 연구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sup>45)</sup> 백중은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기념되는 날인데, 특히 일본에서는 이 날이 우리의 추석과 대응될 만큼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sup>46)</sup> 어떻게 되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 역시 앞으로 고구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백중은 우리의 식생활이 농경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대, 그리고 또한 농경의 시작이 매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시대에 형성될 수 있는 문화였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인격화된 신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농경이나 풍농이 어

44)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390.

45) 장정룡(1988),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 연구」, (서울, 집문당), pp.198~200을 참조하면, 중국에서는 이 날을 ‘鬼節’이라고도 하고 ‘중원절’로서 上·下元과 함께 三元中 地官인 淸虛大帝의 탄일이라 하여 祭를 지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우리의 백중 행사 중 호미씻이 등을 중국기원의 풍속을 우리의 습성에 맞게 고친 것으로 보고 있다.

46) 장주근(1986), “한중일 3국의 국정 공휴일 비교” 「한국민속논고」, (서울, 계몽사), pp.461~2.

는 특정한 신과 관련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을 때, 또는 그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신이나 과학적 기술이 나타날 때 의미나 의의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백중은 오랜 동안의 전통을 거치면서 그 원래적 의미나 의의가 아주 약화되었고, 지금은 그 맹아만이 남아 이것이 원래 농경과 관련된 어떤 날이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구호가 한갓 미명일 수밖에 없게 되는 앞으로의 시대에 들어서면 백중과 관련된 문화는 더더욱 그 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하여 자못 걱정이 아닐 수 없다.

## VI. 맺음말

음력 칠월 십오일인 백중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세시풍속 중의 하나다. 절이나 민가에서는 이 날 여러가지 행사가 행해져 왔는데, 이러한 모습은 현재도 잔존하고 있어 농촌에서는 여러가지 독특한 행사가 아직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은 백중이 우리 문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고는 백중이 가진 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기원적 성격이 무엇인가를 밝혀 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본고에서 논의된 바를 정리하여 결론을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여러 문헌자료와 보고서 등을 근거로 하여 민속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백중의 양상을 정리했다. 백중은 백중, 백중 등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한자로는 百種을 비롯한 다양한 표기가 이루어진다. 절에서의 천도제가 우란분재와 관련하여 이해되고 있고, 또한 민간층에서는 차례, 천신 등이 행해진 흔적이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는 백중장이 서고 씨름판이 벌어지고도 있다. 또한 다양한 백중놀이들이 머슴들 혹은 농군들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밀양의 백중

놀이에서는 병신춤놀이에 앞서 농신제에 대한 제의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앞서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백중은 원래 농경과 관련된 세시가 아니었던가 하는 추론을 할 수 있었다.

Ⅲ·Ⅳ장에서는 우리나라 농경기원신화라 할 수 있는 〈세경본풀이〉의 내용 및 신화적 의미, 그리고 문화사적 위상을 살펴 보았다. 제주도 큰곳에서 불리우고 있는 몇개의 무속신화는 우리민족의 고대적 문화가 섬지방인 제주도에 남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세경본풀이 역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세경본풀이는 현재 제주도에 행해지고 있는 큰곳속에서 심방(무당)에 의해 불리우고 있지만, 이것은 원래 큰곳 열두거리 중 여덟번째로 행해졌던 바 농경신에 대한 제의속에서 불리웠던 신화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자청비라는 여신이 하늘로부터 오곡종자와 열두시만국을 얻어 칠월 열나흘날 지상에 내려왔고, 이 법으로 백중살이가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세경본풀이가 우리민족의 농경기원신화이고, 또 백중은 이러한 신의 일에 근거하여 형성된 우리민족의 농경기원일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다.

V장에서는 앞서의 신화 내용을 중시하여 백중을 우리민족의 농경기원일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백중이 百種이라고도 말해지며 그 속에 곡식 종자의 의미를 담게 된 것은 바로 백중의 기원이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이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백중놀이 등에서 농신제에 대한 제의가 남아 있게 된 것 역시 이런 바탕에 근거했던 것이다. 백중의 기원적 성격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백중은 고대에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문화에 백중이 그 뿌리를 깊게 드리우고 있는 것은 이와같은 사정에서 연유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백중이라는 세시풍속이 원래는 농신, 또는 농경과 관련된 祭日이었던 것이 후대에 불교의 우란분회의 영향으로 원래의 민속적 의의를 잃게 되었다는 기존의 학설은 매우 타당성이 있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백중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 參考文獻 □

〈자료〉

-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동국세시기」外, 서울, 대제각, 1987)  
「한국민속대관」 (서울,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대사전」 (서울,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서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81.  
진성기(1968), 「남국의 전설」, (서울, 일지사)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서울, 신구문화사)

〈논저〉

- 강무학(1990), 「한국세시풍속기」(서울, 집문당)  
김성배(1980), 「한국의 민속」(서울, 집문당)  
양재연외 3인 공저(1971), 「한국풍속지」(서울, 을유문화사)  
이수자(1989), 「제주도무속과 신화 연구」, 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제주도 큰굿의 구조적 원형 및 문화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7집, (제주도연구회)  
(1990),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1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임동권(1985), 「韓國歲時風俗研究」 (서울, 집문당)  
장정룡(1988),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서울, 집문당)  
장주근(1984), 「韓國의 歲時風俗」 (서울, 형설출판사)  
(1986), 「한국민속학논고」 (서울, 계몽사)  
최남선(1973), 「육당 최남선 전집」 3, 高大아세아문제연구소 편(서울, 현암사)  
[「朝鮮常識」(1946), 「朝鮮常識問答」(1947)]  
「法施」 11, “一 中元節 - 白種의 由來”, (法施社編)(1968.8)